

經濟學에의 行爲學的 接近方法論¹⁾

—G. Schmölders의 所論을 中心으로—

李 弼 佑

(韓國產業開發研究所·經博)

차 례

머리말

- I. 行爲理論으로서의 經濟理論
- II. 行爲學的 接近의 起源
- III. 社會經濟行爲學的 方法論
- IV. 社會經濟行爲學的 課題
- V. 社會經濟行爲學的 理論的 功獻
맺는말

머 리 말

理論과 現實의 乖離 乃至 不一致는 일찍기 經濟科學에 있어서보다 더 큰 적은 없었다. 經濟科學이 實踐科學으로서의 任務를 다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經濟現實을 올바르게 解明 診斷하고(Diagnose) 그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닥아올 새로운 經濟推勢를 正確히 展望豫測 하고(Prognose) 또 政策當局者에게 有効한 政策道具를 提示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經濟科學이 이와 같은 本來의 使命을 다하고 있는지는 經濟學徒로서 신중한 檢討와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經濟學徒는 이른바 經濟科學의 成就能力 (Leistungsfähigkeit der Wirtschaftswissenschaft)의 再檢討를 通하여 經濟科學에 있어 빈번히 야기되는 理論과 現實의 乖離를 一致시켜야 할 것이다.

本論의 目的은 첫째, 傳統的 經濟理論²⁾의 經濟現實의 說明 또는 問題解明에 있어서의 方法論的인 不適合性을 指摘하며 둘째, 理論과 現實의 乖離를 一致 시킬 수 있는 方法論의 모색으로서 G. Schmölders 教授에 의해 主唱되고 있는 社會經濟行爲學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또는 社會經濟學(Sozialökonomik)의 方法論을 論議하는 데 있다.

I. 行爲理論으로서의 經濟理論

傳統的經濟理論은 오늘날까지 經濟的으로 關聯된 諸現象 즉 物價, 賃金, 利子, 投資, 消費, 貯蓄, 貨幣價值 등을 단지 이른바 經濟的인 要因(ökonomische Faktoren)의 量的相關關係로서 把握하여 그 以外的 經濟外的 要因을 사상하여 說明해 오고 있음이 支配的이다.

1) 本論文은 1971年 6月 12日 銀行集會所에서 開催된 韓國經濟學會主催 經濟學研究發表會에서 發表한 內容을 基礎로하여 作成되었음.

2) 本論에서 “傳統的 經濟理論”(traditionelle Wirtschaftstheorie)이라고 할 때 우리는 A. Smith 以來的 古典學派, 新古典學派, 均衡學派, Keynes 學派 및 後期 Keynes 學派들의 推論의 演譯法에 立脚한 諸經濟理論을 指稱한다.

勿論 그와같은 接近을 通해 우리는 經濟現象의 量的相關關係를 보다 精密하고 明確하게 파악시킬 수 있으나 反面 實際經濟現實의 狀態를 豫測(Prognose)함에 있어서 빈번히 失敗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근한 例로서 우리는 物價上昇現象을 單純히 通貨數量學說에만 基礎하여 解明한다든지 또는 經濟成長 問題를 單純히 資本, 技術, 勞動의 純經濟的 要因의 效率의 結合乃至投下로서 파악함은 그릇된 豫測으로 또 그릇된 政策手段 提供으로 우리를 誘導할 것이다. 物價上昇 問題 또는 開發途上國의 成長問題가 보다 根本的으로는 한社會의 心理的 制度的 要因에 의해 規定되고 있음을 지난 60年代에 數 많은 學者들이 指摘한바 있다.³⁾

Harrod-Domar의 成長模型이 一般的으로 하나의 成長의 必要條件은 될지언정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그것이 充分條件이 될 수는 없다.⁴⁾ 또 우리는 勞動供給曲線이 一定한 賃金上昇率을 넘으면 後屈하는 所謂 backward bending curve of labor supply⁵⁾(後屈된 勞動供給曲線)을 볼 수 있다. 이는 經濟的인 自給自足的 궁핍의 경제(Wirtschaft des Mangels)로부터 풍요리의 경제(Wirtschaft des Überflusses)로 發展 함에 따라 經濟人은 賃金率과 關係 없이 餘有時間을 生活의 享樂部分에 더 많이 配分하는 傾向이 있음을 말해 주며 (이에 따라 大量消費時代의 leisure industry도 發展한다) 따라서 Galbraith의 意味에 있어서의 “풍요리의 경제” 社會에 있어서 傳統的인 “需要供給의 法則”의 適用性的 限界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⁶⁾. 傳統的 經濟理論(특히 計量的 模型乃至 純粹均衡理論)이 現實世界에 나타나는 經濟的現象의 充分한 解明과 正確한 豫測을 不許하는 理由는 基本的으로 그 方法論의 缺陷에 있다. 그들 缺陷을 이에 指摘한다던,

첫째, 經濟科學의 分析對象으로서 經濟的現象中에서 쉽게 計量化할 수 있는 量的概念(Ponderabilien)인 經濟的 要因(Faktoren)만을 다루며 그 以外의 計量化하기 困難한 質的 概念(Imponderabilien)은 他分野의 科學(例, 政治學, 社會學, 歷史學, 心理學)에 屬하는 것으로 看做하고 이를 사상하고 있다.

둘째, 理論乃至模型整立의 前提條件으로서 homo oeconomicus의 ceteris paribus를 前提하고 있다. 즉, 經濟的으로 關聯된 經濟主體의 行爲는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언제나 同一하게 利潤追求 또는 効用極大化에만 철두철미하게 專心한다는 것으로 特徵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같은 經濟人의 概念을 現實의 類型(Realtyp)으로 看做하고 있다.

셋째, 傳統的 經濟理論의 接近方法의 共通의 特性으로서 演譯法(Deduktion)을 指摘할 수 있다. 現實世界의 個個의 具體的인 事實의 綜合으로부터 高次的인 一般的 法則性을 導出하려는 歸納法(Induktion)에 反하여 그들은 推論의 一般的인 結論으로부터 現實世界의 具體的인 個個의 現象의 法則을 摸索하고 있다.⁷⁾

3) D.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1961. 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How economic growth begins, Illinois, 1962. A.W.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1955. G. Myrdal,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Vol. I., New York, 1968. B. Hoselitz, Sociological Aspect of Economic Growth, Illinois, 1960.

4) H. Bruton, Contemporary Theorizing on Economic Growth, in: B. Hoselitz(ed.), Theorie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1960.

5) P. Samuelson,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6th Edition, New York, 1964. p.395. Higgins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制度的 취약性에 基因한 후굴된 勞動供給曲線을 지적하고 있다. B.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London, 1959. p. 286f.

6) J.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Boston. 1958.

7) G. Schmolders, Der wirtschaftende Mensch als soziales Wesen, in: Merkur, Heft 5, 1960. G. Schmolders, 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in: ORDD, Jahrbuch für die Ordnung vo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Bd. 5, Düsseldorf und München, 1953.

分析對象으로서 質的인 要因인 Imponderabilien 을 除去함으로써 從來의 經濟科學의 範圍는 보다 협소화 되었으며 특히 心理的 要因이 除去됨으로써 現實說明에 대한 公言力(Aussagekraft)은 極히 薄弱과 되어 버렸다. 物價理論에 있어서 經濟主體 또 經濟集團의 心理的 刺激 波動(Reizschwelle) 현상 및 心理的 感染(Ansteckung)過程을 통한 貨幣價值意識의 저하는 바로 이에 가장 비근한 예이다.⁸⁾ 즉 公共料金の 引上案이 實施되기도 前에 단지 그의 公告說이 돌았을 때 이미 物價는 뛰기 시작한다. 이를 G. Schmölders 는 信號의 作用(Signalwirkung)이라고 했는가 하면 A.C. Pigou 는 告示效果(Announcement Effect)라고도 稱했다. 社會學的인 觀點에서의 物價上昇 또는 Inflation 현상의 說明은 一定한 量의 社會生産物을 놓고 各 經濟階層(企業家, 金利生活者, white collar 근로자, 勞動者, 政府, 販賣者 消費者 etc.)들이 보다 많은 몫을 自己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所得爭奪戰의 貨幣의 現象이라고 解説하고 있다.⁹⁾ 自己 몫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것은 人間의 共通의인 慾望으로서 이는 人間의 本性(Natur der Menschen)에 屬하는 問題이기도 하다.

傳統의 經濟學派의 推論의 연역법 및 homo oeconomicus 가설 前提는 本來 18世紀 歐羅巴 社會를 휩쓸었던 合理主義思想 및 계몽主義思想(Aufklärung)에 크게 影響된 所致라고 할 수 있다. 오지리 Wien 의 限界効用學派도 本來는 心理的인 側面을 포착했으나 그들은 始終 人間心理의 가장 合理化된 內觀的인 心理的 側面(rationalisierend-introspektive Psychologie)만을 다루었으며 이는 또한 Bentham 의 Utilitarismus, 즉,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및 滿足의 極大化를 追求했던 功利主義 思想에 영향된 까닭이었다.

傳統의 經濟理論에 있어서도 心理的 要因은 간혹 단편적으로 다루워지고 있으며 그 좋은 예는 J. M. Keynes 의 流動性選好說(Liquidity Preference)이며, 즉 그는 經濟主體의 流動資產處理의 決定要因을 去來的 動機, 投機的 動機, 豫備의 動機 등의 諸心理的 要因에 究明하였다. 또, 企業家의 投資決定理論에 있어서도 決定的인 要素는 未來에 대한 期待(Erwartung)라는 心理的 要因이다.¹⁰⁾

이들 諸要因은 모두 純經濟的인 要因보다는 오히려 經濟主體의 心理的 要因과 直接 간접히 結付되고 있음은 明白하다. 그러므로 經濟科學이 보다 現實을 正確히 說明해주어야 한다면 의당 우리는 그 편협한 分析의 畛域을 脫皮하고 보다 넓게 그 범주를 設定함으로써 現實에 근사한 理論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反對로 經濟理論이 Imponderabilien 에만 集中하면 集中할 수록 實際問題와는 漸次 거리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傳統의 經濟理論의 接近方法論의 致命的 缺陷은 무엇보다도 ceteris paribus Prämissе인 homo oeconomicus 에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經濟的으로 關聯된 人間의 經濟行爲가 언제 어느때나 一定하게 効用極大化 내지 利潤極大化로만 特徵지워진다고 하는 假說을 前提하고, 모든 經濟主體를 냉철히 打算하고 合理的으로 行爲한다는 homo oeconomicus “經濟人”으로 看做함으로써 經濟現象은 단지 物量的 要因의 相關關係로 壓縮하여 파악함으로써 A 要因의 量的變化는 B의 要因에 豫定된 대로 變化를 줄 것이라고 推論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의 存在로서의 經濟人은 歷史上 어느 時代 어느 場所에서도 단 한번도 언제나 homo oeconomicus 로서

8) G. Schmölders, Geldpolitik, Zürich, 1962. S. 253.

9) 이를 Schmölders 는 “endogene Inflation” 로서 概念하고 있다. G. Schmölders, Geldpolitik, a.a.O., S. 261.

10) G. Schmölders, J. M. Keynes, Beitrag zur 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in: G. Schmölders, P. Schröder, H. St. Seidenfus, J. M. Keynes als “Psychologe,” Berlin, 1956.

行爲하지 않았음은 오늘날 社會學者 人類學者, 社會心理學者들은 論證하고 있다.¹¹⁾ 人間은 때로는 合理的으로 때로는 非合理的으로 行爲하며 經濟世界에 있어서도 人間の 行爲는 合理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非合理的인 要因이 더 많이 作用하는 경우가 있다.¹²⁾ Max Weber는 西歐文明의 發展의 기축이 되었던 資本主義精神을 Protestant의 倫理에 追求했으며, 즉 神에의 보답은 단지 神이 自身에게 負荷한 使命을 完全히 遂行하는데 있으며 그는 곧 하늘이 내린 자기 職業(Beruf)을 天職으로 알고 自身の 生業에 全心全力하여 義務를 完遂한다는 新教徒의 倫理였다. 이와 같은 天職의 수행은 合理的인 動機라기보다는 오히려 非合理的인 動機였음을 인식할때 經濟成長이 만드신 合理的 要因만으로 이루어 진다는 法則도 없는 것이다.¹³⁾

J. Marchal은 言及하길 計量的 模型에 있어서 社會의 存在인 經濟主體를 homo oeconomicus로 看做함은 人間을 마치 Robert로 看做한거나 다름 없으며 즉 단추를 누르면 손을 올리고 또 다른 단추를 누르면 걸어가는 機械의 人間으로 虛構化(Fiktion)시켰다고 批判하고 있다.¹⁴⁾ 問題는 하나의 變數를 變化했을 때 그것이 經濟主體의 行爲에도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냐는 즉 經濟主體의 心理的 動機, 態度, 價値에 대한 一定한 條件이 前提되 있는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할 것이다. 인제 어느때나 누구를 莫論하고 合理的 動機, 合理的 態度 合理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는 前提는 現實經濟問題解決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再言을 不要로 한다.

企業家の 威身の 投資, 社會事業, 消費者의 demonstrative Konsum¹⁵⁾ 政府 資源配분에 있어서의 政治的 要因의 支配性 등은 모두 傳統的 經濟理論의 homo oeconomicus의 假說을 否定해야만 하는 現實經濟 世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實證的 資料에 不過하다.

Lausanne 學派를 形成했던 Pareto도 처음에는 오지리와 英國의 均衡理論에 몰두하여 選擇行爲에 있어서 重要な 經濟學概念인 無差別曲線을 창안했으나 後期에 그는 그와같은 人間行爲의 論理的(logisch) 性格에만 기초한 理論에 不適合性을 感知한 나머지 그는 人間行爲의 非論理的인 社會學的(soziologisch)인 側面(Residua 및 Derivationen)을 파헤치기 시작하여 社會學과 政治學에도 많은 功獻을 하였다.¹⁶⁾

Talcott Parsons는 企業家の 利潤動機는 心理學的인 범주에 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 規範化된 制度化된 行爲 規準의 結果로서 說明하고 있다.

結果의으로 人間을 機械化 해버린 計量的 模型理論(Modelltheorie)은 實際經濟現實의 豫測에 不適合한 結論을 가져오기 쉽다. 前述한 바와 같이 傳統的 經濟理論은 演譯法에 基礎하고 있다. 經濟主體를 冷徹히 打算하고 合理的으로만 行爲하는 經濟人으로서 간주하고 物量的 相關關係의 原理의 發見을 통해 보다 推論의이고 現實世界에는 存在할 수 없는 經濟的 極樂世界(wirtschaftliches Nirwana)에서나 可能的 理論을 整立하고 있다. 現實 世界에서 實證될 수 없는 理論은 理論으로서 成立될 수 없으며, 經濟科學이 實踐科學이라면 당연히 現實 問題를 說明할 수 있고 또 經驗에 依해 實證되어야 할 것이다(K. Popper). 市場

11) G. Schmolders, Verhaltensforschung vom Menschen, S. 187.

12) M. Herskovits, Economic Anthropology, New York, 1952, S. 19f.

13)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I, Tübingen, 1920, S.69f.

14) J. Marchal, Gegenstand und Wesen der Wirtschaftswissenschaft, Zeitschrift f. d. ges. Staasswissenschaft, Heft 4.

15) H. Kreikebaum und G. Rinsche, Das Prestigmotiv in Konsum und Investition, 1961.

16) E. Salin, Geschichte der Volkswirtschaftslehre, 4. Aufl. S.174.

形態論者인 E.H. Chamberlin, R. Triffin, H. von Stackelberg 등은 完全競爭의 模型이 現實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假說에 基礎함으로써 現實世界에는 適用될 수 없음을 是認하고 있다¹⁷⁾. 推論의 演譯法에 의해 經濟理論은 高度로 推想化 되어 버렸으며, 特히 理想的 類型에의 追求는 經驗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一方的으로 規範科學化하는 傾向이 濃厚하였다.

傳統的 經濟理論의 여사한 方法論의 缺陷을 止揚하고 經濟現實을 보다 滿足하게 解明하여 理論과 實際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有効한 實現貫徹될 수 있는 政策手段을 提示하기 위하여 Schmölders 教授는 經濟現象分析에 行爲學的 接近을 示圖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經濟의 諸量的概念인 投資, 貯蓄, 消費, 購買, 販賣 등의 巨視的 集計概念들은 本來 社會的存在으로서의 人間(經濟主體)의 行爲의 結果(Verhaltensergebnisse)로서 파악하고 있다.¹⁸⁾ 傳統的 經濟學派들의 오류는 바로 經濟行爲의 表面的 現象을 쉽게 計量化할 수 있는 物量的概念들 間의 相互機械論的인 함수 관계에만 몰두한 데 있었으며 이는 行爲學的인 觀點에서 볼 때 靜態的 考察에 不週하였다. 즉 그와같은 量的 要因들을 궁극적으로 規定해주는 經濟主體의 行爲의 決定要因을 전혀 考察하지 않은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現實的인 經濟理論은 行爲學的으로 接近되어야 할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I. 行爲學的 接近의 起源

社會科學으로서의 “社會經濟學” 또는 “社會經濟行爲研究”의 誕生은 그 기원에 있어 決코 새로운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19世紀 獨逸歷史學派의 方法論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歷史學派는 傳統的 經濟學派들과는 달리 經驗的 歸納法(empirische Induktion)을 견지하면서 個個의 具體的인 經濟事實의 資料를 수집하고 그를 綜合 歸納하여 一般 理論을 導出하려고 努力했다. 그들은 또한 經濟主體인 人間을 歷史化된 諸社會經濟的 制度에 영향을 받는 즉 環境에 支配되는 社會的存在으로서 파악하고 經濟外的인 要因인 心理的 制度的 要因의 經濟現象에 對한 영향을 分析함에 集中하였다. 또한 그들은 傳統的 經濟學派에서와 같은 推論의 演義的 方法에 立脚한 現實在界에서는 經驗할 수 없는 推論의 理論을 論駁하고 經驗世界에서 理解할 수 있는 〈理解的 國民經濟學〉(verstehende Volkswirtschaftslehre)을 主張했다. 特히 그들은 經濟적으로 關聯된 行爲를 人間의 社會行爲로서 把握하고 그를 規定해주는 文化的, 制度的 特性을 規明하였다. F. List는 Adam Smith의 分業論과 價值論(物量的 資本)에 基礎한 萬民主義(Kosmopolitalism)에 反駁하고 國富의 原因을 物量的 資本의 개념보다 先次的 意義를 지니는 “國家의 生産力”의 概念(nationale Produktivkräfte)에 究明했으며 그의 解明에 있어서 心理的, 制度的 要因의 相關關係를 풀이하고 產業化過程의 諸前提條件을 說破하고 있음은 開發途上國의 經濟問題解決에 敎訓이 됨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⁹⁾. List 後 後期歷史學派인 Schmoller, Wagner Sombart 및 Weber 등의 大著作들은 經濟的 事實(wirtschaftliche Sachverhalte)의 法則性을 經驗적으로 導出하기 위한 努力이었고 特히 그의 分析은 制度的인 色彩가 濃厚한 것으로 特徵되여지고 있다. 獨逸의 歷史學派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의 制度學派(Institutionalismus)도 新古典學派의 均衡理論을 反駁하고 一聯의 經濟現象을 經濟적으로 關聯된 人間의 社會行爲의 結果로서 把握하고 그를 影響하는 制度的 環境의 研究에 集中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들은 古典學派가 接受認

17) G. Schmölders, Geschichte der Volkswirtschaftslehre, Hamburg, 1962, S.121.

18) G. Schmölders, 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a.a.O.

19)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Tübingen, 1959, S. 143~155.

定했던 homo oeconomicus의 假說의 前提條件을 否定하고 經濟主體의 利潤極大化 乃至 効用極大化의 行爲는 人間의 社會經濟行爲의 極히 작은 部分에 不過하며 特히 그와 같은 超合理的 行爲의 現實經濟世界에서의 適用範圍는 極히 협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人間의 社會的 行爲를 規定하는 社會的 制度的 規定性(soziale Bedingtheit)의 研究에 集中했다.²⁰⁾ 獨逸의 W. Sombart의 著作²¹⁾에 크게 影響받은 美國의 制度學派의 創始者인 Thorstein Veblen의 代表的 저작인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는 本來 副題가 말해주듯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 制度的 經濟學的인 측면에서의 研究이었다.²²⁾ 그는 經濟發展의 心理的 前提條件으로서 “instinct of workmanship 및 instinct of idle curiosity”(技術革新과 관련된 환상적 思考의 本能) 등의 概念을 들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Veblen에 의하면 制度的 環境의 要因에 依해 強力히 規制된다는 것이다.²³⁾ 社會經濟行爲學은 獨逸歷史學派와 美國의 制度學派의 方法論的 思想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社會經濟行爲學은 오늘날 獨逸歷史學派의 후예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Renaissance라고도 할 수 있다.²⁴⁾ 社會經濟行爲學의 어휘는 1953年 Schmölders에 의해 最初로 使用되어졌으며, 美國에서는 G. Katona²⁵⁾ 教授 또 佛蘭西에서는 Reynaud²⁶⁾ 教授가 各各 行爲學의 接近을 示圖하고 있다.

Ⅲ. 社會經濟行爲學(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의 方法論

獨逸의 社會心理學者이며 人類文化學者인 Arnold Gehlen은 그의 人間(Der Mensch)²⁷⁾이라는 著書에서 人間의 行爲의 決定要因을 究明하였다. 그에 의하면 人間의 行爲는 첫째 心理的 變數와 制度的 變數에 의해 強力히 영향되며, 心理的 變數에는 價值, 動機, 態度, 期待 등을 들 수 있으며 制度的 變數의 범주에는 制度, 規範, 傳統, 습관 등이 屬한다. 兩者의 變數들은 相互 영향하며, 또 反作用하나, 根本的으로 心理的 變數는 制度的 變數에 依存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經濟行爲學에서는 心理的變數를 依存變數(beeinahe abhängige Variable), 制度的 變數를 獨立變數(beeinahe unabhängige Variable)로서 看做하고 있다. 이와 같은 變數間의 相關關係는 特히 成長問題와 관련하여 J. Kunkel에 의해서도 더욱 明確하게 다루워지고 있다.²⁸⁾ 이와같은 命題下에서 G. Gäfgen은 經濟的 決定理論에서 經濟主體의 行爲決定要因을 行爲者(Aktor)의 現在의 情報受事情과 價值觀 및 그의 外界의 環

20) G. Schmölders, Verhaltensforschung vom Menschen, S.189.

21)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Berlin, 1962. Der Bourgeois, Zur Geistesgeschichte des modernen Wirtschaftsmenschen, München und Leipzig, 1913.

22) Th.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s, New York, 1899. Z. C. Dickinson, The Relations of Recent Psychological Developments to Economic Theory, in: Q.J.E. Vol. 19. No. 2, July, 1919, S. 394~401.

23) Th.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a.a.O., S.98. u. S. 335f. D. Riesman, Thorstein Veblen, Acritical Interpretation, New York, 1960, S. 60. C.E. Ayres, The Theory of Economic Progress, New York, 1962, S. 98f. u. S. 155~176.

24) W. Bongard, Nationalökonomie wohin? Köln und Opladen, 1965, S. 59.

25) G. Katona, Psychological Analysis of Economic Behavior, New York, 1951.

26) P.L. Reynaud, La pression psychologique et la dynamisme des producteurs, in: Finanzarchiv, N.F., Bd. 19, 1959, Heft 3.

27) A.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onn, 1955. G. Schmölders, Der wirtschaftende Mensch als soziales Wesen, a.a.O.

28) J.H. Kunkel, Values and Behavior in Economic Development,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3, No. 3, April, 1965.

경제 要因에 究明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은 接近을 Engelhardt는 財政當局 및 租稅納付者의 決定理論에 援用하고 있다.³⁰⁾

따라서 經濟行爲學은 經濟現象을 人間의 經濟的으로 關聯한 社會行爲(soziales Verhalten)로서 파악하고 經濟量的의 相關關係를 質的인 要因인 心理的의 變數 및 制度的의 變數를 援用하여 解明하고 있다. 故로 經濟行爲學의 分析의 出發點은 形式化되고 合理化된 特定한 行爲樣態乃至는 純經濟的의 要因만을 다루는 傳統的의 經濟理論과는 달리 經濟的의 實際事項(Sachverhalte)들을 社會經濟的의 諸要因의 相互作用의 結果인 人間行爲로서 理解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純經濟的의 要因인 貨幣 및 財貨의 流通界에서의 去來는 個人的의 動機 및 社會的의 規範 및 制度的의 相互作用을 通한 人間의 行爲의 結果로서 파악되어지고 있다. 人間의 行爲樣態의 變化乃至 行爲의 反應(menschliche Reaktionen)은 過去의 體驗과 現在 그가 處한 位置 및 態度와 또 未來의 期待의 要因들에 의해 強力히 規制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考察을 外面하고 純經濟的의 要因의 函數關係에만 基礎한 政策手段이 有効하게 奏效할 수 없음은 明白하다 하겠다. 傳統的의 經濟理論의 公理의 하나는 貯蓄을 所得의 函數關係 $S=f(Y)$ 로 表現하며 바꾸어 말하여 貯蓄의 追加的의 増分은 追加的의 所得増分에 依存한다고, 그러나 다음 期에 있어서 追加的의 所得増分이 實現되었다 하더라도 經濟主體의 貯蓄意慾乃至 貯蓄動機가 前期에 있어서와 언제나 同一하게 現存한다는 保障은 없으며 그의 保障없이 追加的의 貯蓄이 自動的으로 實現될 수 없음은 明白하다. Veblen의 意味에 있어서의 展示的의 消費(conspicuous consume)의 慾求 즉 虛飾的인 威身의 慾求가 社會的으로 規範化되고 制度化된 社會에 있어서 所得的의 追加的의 増分이 곧 貯蓄 또는 投資를 意味하지는 않는다. 貯蓄이 언제나 所得水準에 依存하지 않는다는 從來理論에 대한 反命題는 社會經濟行爲學의 接近을 通해 이미 立證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分析의 方法論的의 出發點을 前提한 社會經濟行爲學은 從來的의 學派가 前提했던 homo oeconomicus의 假說을 포기하고 經濟主體의 合理的의 및 非合理的인 行爲樣態의 決定因子를 包容하는 經濟的의 要因(Ponderabilien)은 勿論 經濟外的의 要因(Imponderabilien)까지도 그 分析對象으로 하고 있다. 經濟問題를 올바르게 解明하는데 있어서 特히 Myrdal에 의하면 그 分析對象으로서 經濟的의 要因 또는 經濟外的의 要因의 區別보다는 解明하려고 하는 分析對象(經濟現象)과 關聯性이 있는 要因(Relevanz)이나 또는 關聯性이 없는 要因(Irrelevanz)이나의 區別이 더욱 重要하다고 한다.³²⁾ 따라서 이는 relevant한 것이 經濟的의일수도 社會的의일수도 또 政治的의일수도 있음을 意味한다. 이는 또한 人間의 社會的의 行爲의 結果인 經濟現象이 언제나 純經濟的의 要因에만 關聯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Chicago의 女流經濟學者인 Irma Adelman은 經濟成長 問題에 要因別 分析(factor analysis)을 示圖하고 있으며, 즉 各國의 發展段階에 있어서 經濟的的, 社會的的, 政治的的의 要因中 어느 要因이 보다 成長에 relevant한가를 研究한 바 있다.³³⁾ Ponderabilien 및 Imponderabilien을 分析對象으로 하는 社會經濟行爲學은 故로 隣接科學的의 綜合的 接近方法을 택하여야 하며, 즉 經濟學的의 理論은

29) G. Gäfgen,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scheidung, Tübingen, 1963.

30) G. Engelhardt, Der Beitrag der Finanzpsychologie zu einer rationalen Steuerpolitik, in: G. Schmolders (Hrsg.), Wirtschaftstheorie als Verhaltenstheorie, Berlin, 1969.

31) G. Scherhorn und D. Fricke, Hängt die Spartätigkeit vom Einkommen ab? in: Blätter für Genossenschaftswesen, Bonn, 1961, Hft. 16.

32) G. Myrdal, Ökonomische Theorie und unterentwickelte Regionen, Stuttgart, 1959, S. 8.

33) I. Adelman and C.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Baltimore, 1967.

勿論, 社會學, 政治學, 心理學, 社會心理學, 人類文化學 등의 餘他的 諸學問分野의 理論을 援用해야하며 따라서 이를 우리는 社會科學의 融合(Integration der Sozialwissenschaften)이라고 表現할 수 있다.

끝으로 社會經濟行爲學은 傳統的 經濟理論의 推論의 演譯法을 止揚하고 經驗的 演譯法(empirische Deduktion)을 채택하고 있다. 推論的 演譯法(abstraktiv-kontemplative Deduktion)에 입각한 傳統的 經濟學派는 經濟現象의 法則性을 推論을 통해 假說을 整立하고 經驗世界에서는 立證될 수 없는 高度로 推想화된 模型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特히 模型 理論에 있어서 그들은 Pareto의 Optimum의 概念을 빌어 租稅·經費·利子·投資·貯蓄 및 成長에 관한 最適點을 摸索하고 있다. 經濟法則性의 模型化 또는 순수理論化의 努力은 經濟科學의 金子塔的인 理論的 功獻은 至大하였지만 그러나 그 反面 經濟理論과 經濟現實間의 乖離 乃至 不一致를 점차 深化시켰다. 또한 그들의 最適點들은 政策當局者로서 願望되는 當爲의 政策目標과 關係된 規範的經濟學에 功獻은 컸지만 反面 理想的으로 推論된 最適點에 立脚한 政策目標은 그 政策執行過程에서 失敗와 차질을 結果하였다.³⁴⁾ 特히 獨逸에 있어서 經濟政策至乃 財政政策目標의 設定에 있어서 政策當局者는 “最適點”을 위한 純經濟的 基準에 立脚하기 보다는 오히려 執權黨의 政治的 基準에 立脚하고 있음이 支配的이었다고 한다.³⁵⁾

H. C. Recktenwald도 規範的財政學(normative Finanzwissenschaft)을 示圖하고 있는 R. Masgrave³⁶⁾의 豫算의 最適模型(optimal budget)이 複雜한 政治的意思決定의 過程을 통해 이루어지는 豫算通過의 性格을 考慮할 때 그 模型의 實現可能性에 회의를 품고 規範的 財政學의 限界性을 指摘하였으며 보다는 現代財政理論은 實證的 財政學(positive Finanzwissenschaft)에 의해 補強되어야 함을 力說하고 있다.³⁷⁾

推論的 演譯法에 基礎한 傳統的 經濟理論은 規範的 當爲의 經濟科學의 確立에 功헌한 長點이 있으나 反面 그들은 上述한 바와 같은 非現實的인 缺함을 지니고 있다. 그에 對해 經驗的 歸納法에 基礎한 歷史學派는 現實世界에 存在 하는 具體的인 個個의 經濟事項을 充分하게 解明함으로써 現實的인 實證的 經濟科學의 確立에 功헌한 長點이 있으나 反面 結果的으로 規範的이고 當爲의인 普遍妥當한 經濟理論의 確立을 期할 수 없었던 缺함이 있다. 한 때 Max Weber는 經濟學徒의 任務은 있는 그대로의 事實(Sein)을 解明하는 것이며, 當然히 어떻게 되어야 한다(Sollen)는 當爲性을 內包하는 問題는 經濟學徒가 解決해야 할 任務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政策은 行政府 및 議會에서 政策決定에 直接參與하는 政治行政家들의 主觀的 價值判斷에 의해 決定되므로 經濟學徒의 任務가 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規範科學과 實證科學의 區分을 明白히 하였다. 그럼으로 Weber는 力說하길 經濟學徒는 主觀的 價值判斷의 범주로부터 離脫解放(wertfrei)(沒價值性)되어 오직 있는 그대로의 事實을 觀察分析解明해야 한다고 한 Weber의 力說은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새롭다. Schmoller와 Menger의 方法論論爭(Methodenstreit)의 核心도 바로 規範科學 對 實證科學, 또는 理論(Theorie) 對 實證(Empirie)이었으며, Weber는 끝내 實證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確立하려는 歷史學派의 立場을 견지했다. 이 結果 歷史學派는 規範的 理論의 確立에 있어서 必然的

34) B. Strümpel, Sozialökonomischer Wandel und Durchsetzbarkeit der Besteuerung, in: Finanzarchiv, Bd. 25, 1966.

35) G. Schmolders, Finanzpolitik, Berlin, 1965, 2. Auflage, S. 11~14.

36) R.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1959, S. 55.

37) H.C. Recktenwald, Die Finanzwissenschaft unserer Zeit, Stuttgart, 1965, S. 13~26.

으로 뒤떨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社會經濟行爲學의 方法論은 傳統的 經濟學派 및 歷史學派가 각기 범했던 오류를 止揚하고 그들의 長點만을 擇함으로써 즉 兩者의 短點은 버리고 兩者의 長點만을 擇한 經驗的 演繹法에 基礎하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社會經濟行爲學의 方法論의 思想의 源頭은 本來 I. Kant의 思想에 基礎하고 있다. 즉 純粹理性批判(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라는 著作을 통해 批判哲學 또는 先驗的 觀念論을 展開하여 哲學史上 크게 功獻한 Kant는 18世紀 지나치게 부풀어오른 西歐의 合理論 및 계몽主義思想의 限界性和 또 英美의 原理없는 經驗論의 缺함을 止揚하고자 했다. 그는 순수 理性이 感覺을 通하여 經驗的으로 주어진 것과는 아무 關係없이 홀로 推理하면 結果的으로 經驗의 世界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一種의 꿈과 夢상에 빠져버리며 그것이 現實世界를 支配할 때, 엉터리 없는 越權의 結果를 빚어낸다고 했으며(例: 宗教의 形而上學의 獨斷) 따라서 理性 또는 思惟는 언제나 經驗的으로 주어진 客觀世界와 連結되어야 하며, 이것이 Kant가 宗教의 獨斷을 許諾치 않았던 理由였다. Kant는 또한 現代科學은 經驗的 世界를 넘을 수도 없고, 그러타고 實驗觀察만으로서 學問이 될 수는 없으며 經驗的 實證科學이 學問으로서 成立하라면 經驗以外에 普遍的인 妥當한 어떤 原理가 부여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비로서 學問의인 體系가 構成된다는 것이다. Kant는 故로 認識의 世界는 經驗할 수 있는 現象世界 뿐이며 거기에는 먼저 感覺的으로 經驗된 內容이 우선 時間과 空間이라는 形式으로 直視되고 그것이 思惟를 通하여 비로서 普遍的인 法則性을 導出한다고 主張한다. 故로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世界는 認識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의 有名한 말인 “直觀없는 思惟는 空虛하고 思惟없는 直觀은 盲目이다.” 즉 “經驗世界와 관계 없이 成立된 모든 理論은 空虛하며 또 하나의 理論의 體系에 基礎하고 있지 않은 모든 經驗乃至 實證의 研究는 역시 盲目的이다.”³⁹⁾ 社會經濟는 行爲學의 empirische Deduktion(實證的 演繹法)을 우리는 實證과 理論 또는 實證科學과 規範科學의 統合 및 融合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經濟行爲學의 經驗的 演繹法은 또한 K. Popper의 영향도 크다고 보아야 한다. K. Popper는 그의 主著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에서 經濟科學의 方法論爭을 終식케 했다. 즉 그는 모든 理論은 經驗世界에서 實證됨으로써 비로서 理論으로서 成立하며, 따라서 모든 假說은 現實世界에 대해 經驗的으로 實證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를 Popper의 Kriterium이라고 稱한다.⁴⁰⁾ 모든 假說이나 理論은 客觀的 普遍性을 지녀야 하는데 實證의 研究에 있어서 研究分析者의 特殊한 環境에 處해 있는 特殊한 主觀的 價値가 介在(value loaded)됨으로 本來 客觀的 眞理는 있을 수 없다.(Myrdal) 왜냐하면 觀察 및 尺술은 人間의 思考를 通한 心理的 現象이며, 心理的 現象인 限 個人的 特殊한 主觀的 價値 因재가 없을 수 없다.⁴¹⁾ 社會科學에 있어서 이와 같은 心理的 問題를 解決한 것은 Popper이며 또 社會科學의 方法論을 終식케 한 것도 그였으며 Popper의 Kriterium에 의해 社會科學은 보다 客觀的이고 實證的인 理論을 提示할 수 있게 되었다.⁴²⁾ 問題는 質的인 要因을 計量化 할 수 있도록 假說의 內容을 조정하고 또 分析을 위해 作業化(operationalisieren)되어

38) G. Schmolders, Zehn Jahre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in Köln, in: ORDO, Bd. XV, 1963.

39) J. Pfeiffer (Hrsg.), Kant-Brevier, Eine Auswahl aus dem Gesamtwerk, München, 1966, S. 43~52.

40) K. Popper, Logik der Forschung, 2. Aufl. Tübingen, 1966, S. 21.

41) G. Myrdal, Value in Social Theory, 1958, S. 1.

42) G. Scherhorn, Methodologische Grundlagen der sozial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Köln und Opladen, 1961, S. 12.

져야 하며 그의 處理方法 乃至 技術(Techniken)은 社會學에서 實施되고 있는 社會調查 方法(social research)의 技術을 援用하고 있다. 즉 集團 또는 經濟主體에 대한 觀察(Beobachtung), 設問(Befragung) 및 因果關係를 究明하는 實驗的 處理(experimentelles Verfahren) 등의 研究技術에 依存하고 있다.⁴³⁾

Ⅳ. 社會經濟行爲學的 課題

그러면 社會經濟行爲學은 果然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 言及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社會經濟行爲學的 傳統的 經濟理論에 대한 立場이다. 그들의 方法論的 缺함은 是認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從來 正統的 經濟學派가 쌓아올린 모든 經濟理論을 全的으로 否定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첫째, 社會經濟行爲學은 모든 從來의 推論的 假說을 Popper의 Kriterium에 立脚하여 經濟現實에 대하여 經驗的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試驗結果에 따라 그 理論 또는 假說의 全面否定 또는 全面肯定, 또는 部分肯定, 또는 部分否定을 한다. 이와 같은 實證的研究을 通하여 從來의 理論내지 模型을 補完한다. 이에 있어 注意할 것은 當初經驗的으로 試驗될 수 없는 假說은 假說로서 成立할 수 없다. (Popper) 그것은 例로서 形式科學인 數學에서나 可能하며 經驗科學인 經濟學에서는 不可能하다. 社會經濟行爲學이 다루어야 할 假說은 처음부터 現實世界에서 經驗的으로 test 되어질 수 있는 假說이어야 한다

둘째, 社會經濟行爲學은 그와같은 研究方法을 通하여 理論과 實際를 一致시키고 나아가서 政策當局者에게 實現 貫徹될 수 있는 有効한 政策手段을 提示해야 할 것이다.

셋째, 巨視的 經濟理論을 微時的 經濟理論 또는 行爲學的인 意味에서의 微視理論으로 壓縮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넷째, 假說을 實際에 대해 試驗, 證明하고 그것이 證明 되지 않았을 때 즉 部分的으로 偽證(Falsifikation)되었을 때 그 理論의 포기보다는 그 理論을 補正(Modifikation)하는 一步一步 작게 그러나 着實히 前進하는 學問的 美德(Tugend der kleinen Fortschritte)을 堅持한다.

다섯째, 行爲學的 接近方法에 依해 우리는 經濟的 決定理論(ökonomische Entscheidungstheorie)에 第2次的인 情報을 提供하여야 한다. 즉 決定者 周邊의 諸經濟主體의 行爲反應에 대한 情報을 提供할 수 있다.⁴⁴⁾

이와 같은 課題의 遂行을 通해 從來理論을 補完하고 나아가 現實과 一致할 수 있는 보다 客觀的이고 普遍妥當한 經濟理論을 樹立하는데 社會經濟行爲學은 貢獻해야 할 것이다.

Ⅴ. 社會經濟行爲學的 理論的 功獻

1953年 Schmolders의 社會經濟行爲學的 必要性을 獨逸新自由主義學派의 學術雜誌인 ORDO에 宣言한지 그의 學問的 成長도 急速히 進行되었다.⁴⁵⁾ 1957년에는 經驗的 社會經濟學研究所(Forschungsstelle für empirische Sozialökonomik)를 設立했으며 1960년에는 經驗的 社會學研究誌"를 發刊하는 研究所를 設立했다(Zentralarchiv für empirische Sozialforschung).

그 後 財政學 貨幣論, 經濟成長論, 貯蓄理論, 消費理論, 企業의 決定理論 등의 諸分野에

43) G. Scherhorn, a.a.O., S.

44) G. Scherhorn, Aufgaben der sozial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in: G. Schmolders (Hrsg.), Wirtschaftstheorie als Verhaltenstheorie, a.a.O. S.9~12.

45) G. Schmolders, Zehn Jahre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a.a.O.

서의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또 價値있는 結實을 보아왔다. 特히 財政學에서는 財政當局者의 意思決定過程, 納稅者로서의 市民의 國家意識, 租稅心性(Steuermentalität), 租稅道義 및 租稅技術 등에 관한 經驗的 研究를 施行함으로써 財政心理學(Finanzpsychologie)⁴⁶⁾이라는 새로운 學問分野를 開拓하고 있으며, 貨幣論에 있어서도 그 間 經濟主體의 貨幣價値意識, 經濟主體의 貨幣處分行爲樣態(Umgang mit Geld), 貨幣 및 財貨의 流通界에 있어서 經濟主體의 心理的 감염 과정(Ansteckung)과 社會心理學的인 Inflation 理論, 國際通貨問題等, 一聯의 貨幣에 관한 問題를 社會心理學的 次元에서 다루므로써 새로운 境地인 貨幣心理學(Geldpsychologie)⁴⁷⁾의 理論을 確立해 가고 있다. 戰後한 때 盛行했던 開發途上國의 成長問題도 人間의 成就意慾('n Achievement) 또는 經濟的 精神風土(Wirtschaftsmentalität), 生產的 行爲樣態 및 成長의 原動力인 生產力으로서의 制度, 規範 等の 概念을 통한 研究, 또 그의 計量化를 통한 國際的 比較研究가 實施되었다.⁴⁸⁾ 貯蓄理論에 있어서도 貯蓄의 決定要因으로서의 貯蓄能力(Sparfähigkeit) 및 貯蓄意慾(Sparwilligkeit)의 概念을 分析道具로 貯蓄의 利率에의 依存度를 經驗的으로 test 하므로써 또 各經濟集團 乃至 經濟계층의 貯蓄行爲의 特性을 分析함으로써 行爲學的 貯蓄理論을 傳統的 貯蓄理論에 補完하고 있으며,⁴⁹⁾ 消費理論에 있어서도 Michigan 大學의 Katona 教授와 共同으로 世界各國의 消費者行爲樣態를 實證的으로 比較研究하고 있으며 이로써 消費理論의 行爲學的 貢獻은 크게 期待되고 있다.

1955年 겨울 學期부터 Köln 大學에는 社會經濟行爲學이 正式으로 講座로서 經濟學 및 社會學專攻者의 主專功科目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1959年 여름學期부터는 選擇科目으로 財政心理學(Finanzpsychologie)이 講座로서 채택되었다.

맺는 말

産業化過程完了後 大量消費時代를 經驗하고 있는 오늘날 先進諸國은 高度의 情報處理를 必要로 하는 情報化社會로 移行하고 있다. 따라서 人間의 經濟行爲에도 從來에 볼 수 없는 큰 變革이 있을것을 未來學者들은 豫言하고 있다. 이에 行爲學的 經濟理論의 必要性은 더욱 切實하며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經濟問題解決에 行爲學的 經濟理論의 공헌은 크게 期待되고 있다.⁵⁰⁾

이미 서거한 獨逸新自由主義學派(Neo-Liberalismus)의 창시자인 Freiburg의 Walter Eucken은 일찌기 “經濟的 現實世界에 있어서 人間의 行爲는 今後 새롭게 研究되어야 한다. 人間의 經濟行爲는 一定하고 또 變化하기도 한다. 果然 어느 限界까지 變化하고 또 어느 限界까지 一定한가?”라고 言及한바 있다. 그의 究明이 社會經濟行爲學的 課題이다.

人間行爲의 一定성이 制度 및 습관과 關係되어 있음이 틀림 없다면 또 人間行爲樣態의 變化가 合理性, 社會經濟的 可動性 및 變化하는 주위 環境의 條件과 關係되어 있음이 틀림 없다면 우리는 社會經濟行爲學이 人間의 經濟行爲에 대한 豫測에 크게 貢獻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해서 무방할 것이다.

46) G. Schmolders, Das Irrationale in der öffentlichen Finanzwirtschaft, Probleme der Finanzpsychologie, Hamburg, 1960.

47) G. Schmolders, Psychologie des Geldes, Hamburg, 1966. Umgang mit Geld, Beiträge zur Verhaltensforschung, Bd. 10, Berlin, 1968.

48) B. Strümpel, Wirtschaftliche Entwicklung als menschliches Verhalten, Berlin, 1964. B. Biervert, Der Beitrag der Haushalte zum wirtschaftlichen Wachstum, Berlin, 1969.

49) D. Fricke, Das Sparen im Spannungsfeld der Bedürfnisse, Eine Kritik der Sparfunktion, in: G. Schmolders (Hrsg.), Wirtschaftstheorie als Verhaltenstheorie, a.a.O.

50) 島失志郎, 情報産業, 東京, 1971.

<Zusammenfassung>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als Alternative zur "traditionellen" Wirtschafts Theorie

von

Pil-Woo Rhee Dr.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Die Kluft zwischen Theorie und Wirklichkeit ist nirgends tiefer gewesen als auf dem Gebiet der Wirtschaftswissenschaft. So erklären die traditionellen Wirtschaftstheorien nicht befriedigend; mathematisch-quantitative und rein ökonomisch konzipierte ökonomische Theorien beziehungsweise ökonomische Modelltheorien berücksichtigen nur den funktionellen Zusammenhang zwischen den leicht quantifizierbaren ökonomischen Faktoren. Die Beschränkung auf die "Faktoren" bei der Analyse der wirtschaftlichen Vorgänge hat immer die Kluft zwischen Theorie und Praxis vertieft. Trotz ihrer mathematischen Exaktheit scheiterten die ökonomischen Theorien oft an der wirtschaftlichen Praxis.

Der Grund für die Unzulänglichkeit der traditionellen Wirtschaftstheorie liegt grundsätzlich in folgenden Punkten: 1) ceteris paribus Prämisse homo oeconomicus, 2) abstraktiv-kontemplative Deduktion, und 3) Beschränkung der Analyse auf die rein ökonomischen Faktoren (Ponderabilien), wie Investition, Sparen, Einkommen, Kaufen und Verkaufen, usw.

Soziologen und Anthropologen haben es genügend klar bewiesen, daß niemals ein menschliches Wesen existierte, das die charakteristische Eigenschaften des homo oeconomicus wirklich besaß. Je weiter wir uns nun von der "Wirtschaft des Mangels" in die Richtung auf eine "Wirtschaft des Überflusses" hinbewegen, desto mehr treten bei der Erklärung der wirtschaftlich relevanten Verhalten der Menschen vielmehr die "Imponderabilien" in den Vordergrund. Die Wirtschaftstheorien, die auf der abstraktiv-kontemplativen Deduktion basieren, haben auf der einen Seite natürlich zur Entwicklung der normativen Wirtschaftswissenschaft beigetragen, doch sie besitzen auf der anderen Seite wenig Aussagekraft für die Wirklichkeit, und ihre Anwendbarkeit auf die wirtschaftspolitische Praxis ist ganz gering, denn ihre Theorien sind nicht nach Erfahrung positiv konstruiert.

Um diese Unzulänglichkeit der traditionellen Wirtschaftstheorie zu überwinden, fordert G. Schmolders die Notwendigkeit der sozial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Sie sieht das ökonomische Verhalten als Spezialfall des allgemein-menschlichen Verhaltens. Der Ausgangspunkt der sozial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liegt in erster Linie darin, daß man die Untersuchung der wirtschaftlichen Vorgänge keineswegs

auf die Verhaltensergebnisse beziehungsweise auf die ökonomischen Grössen beschränkt, sondern daß auch die wirtschaftlichen Entscheidungen, wie von einzelnen Wirtschaftssubjekten (Unternehmer, Konsumenten, Arbeiter, Sparer, Steuerzahler, usw.) getroffen werden, zu ihrem Forschungsgegenstand gehören.

Der Begriff der 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unterscheidet sich ausdrücklich von dem früheren amerikanischen "Behaviorismus", sondern ist eher von den "behavioral sciences" im Sinne einer Zusammenarbeit von Soziologie, Psychologie, Sozialpsychologie, Ethnologie und Sozialökonomik angeregt. Güter- und Geldtransaktionen als Verhaltensergebnisse sind durch die individuellen Motivationen, Werte, soziale Normen, Gewohnheiten und Institutionen einer Gesellschaft bestimmt. Diese Handlungen und Verhaltensweisen können mit Hilfe der empirischen Kausalforschung ermittelt werden. Dabei müssen die Hypothesen mit der wirtschaftlichen Wirklichkeit empirisch überprüft werden und nach dem Untersuchungsergebnis kann man sie bestätigen oder widerlegen. Dazu benutzt man die methodisch hoch entwickelten Verfahren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Befragung, Beobachtung und Experiment). Dieses Verfahren darf man nicht mit der "empirischen Deduktion" der historischen Schule identifizieren. Die Methode der sozialökonomischen Verhaltensforschung kann man viel mehr als "empirische Deduktion" bezeichnen im Sinne einer Kombination der positiven Seiten von Deduktion und empirischer Induktion. Diese Methode beruht auf Kants Auffassung; die Schmölbers im folgenden beschreibt: "...in jeder Erfahrungswissenschaft ist all Theorie leer, wenn sie sich nicht an der Anschauung, an der Erfahrung bewährt, während alle Erfahrung und konkrete Einzelforschung blind bleibt ohne die Ausrichtung auf eine Theorie." So heisst es nach ihm: "Alle Wirtschaftstheorie ist Verhaltenslehre, die sich an der Erfahrung bewähren muß, während wiederum die Verhaltensforschung des theoretischen Rahmens bedarf, um die Erklärung der Einzelphänomene in den Rahmen eines grösseren Zusammenhanges zu stellen."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die seit 1953 in Köln entstanden ist, hat in verschiedenen Bereichen der Wirtschaftswissenschaft ältere ökonomische Theorie nach der Erfahrung empirisch nachgeprüft und neue ökonomische Verhaltenstheorie entwickelt, w.z.B. Finanzpsychologie, Geldpsychologie, Konsum- und Nachfrageforschung, Unternehmensforschung und Spartheorie, usw.

Wenn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r Menschen im Grunde von individuellen Werten, Motivationen, Attitüden, sozialen Normen, Gewohnheiten und nicht zuletzt Institutionen einer Gesellschaft zum grossen Teil abhängig ist, so kann man auch mit Recht darauf hoffen, daß die 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 dazu beitragen kann, einer Prognose des wirtschaftlich-relevanten Verhaltens der Menschen näherzukommen.